

## 홈스테이의 추억

고창육

사노고등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홈스테이입니다.

저는 이와노 타카하루군의 집에서 1 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받았던 가족소개서에는 가족 PR 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무뚝뚝한 느낌의 가족이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타카하루는 정말 활발하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째서 PR 을 적지않았는지 물어보니,단지 시간이 부족해서 적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저는 타카하루와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타카하루의 집으로 향했고, 마중 나와주셨던 타카하루의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타카하루의 아버지께서는 얼굴 생김새부터 웬지 모르게 개그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밥가게에서 초밥을 사서 타카하루의 집으로 향했고,집에서 타카하루의 어머니와 누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타카하루의 어머니께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라고 물어보았더니 「음..엄마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웃으며 답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엄마라고 부를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만,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한 날이 세쯔분(節分)이었기 때문에 「일본식김밥」을 먹게 되었는데, 타카하루와 저를 웃게 하시려고 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원래는 웃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타카하루의 아버지가 세쯔분의 도깨비역할을 자청하시며,집 앞에서 도깨비 흉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노 가의 가족들과 저는 타카하루의 아버지께 쿡을 던졌습니다. 진짜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잘 때에는 상당히 추웠지만 가족 분들의 마음 따뜻한 환영이 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 폭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는 타카하루의 친구인 아키라와 아키라의 파트너인 경배와 함께 남바를 걸어 다니며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점심에는 오코노미야키를 먹었습니다. 친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헤어지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1 일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셨던 이와노 가의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사노고등학교의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